

COVID-19 충격이 청년 니트(NEE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남 재 량*

청년 니트(NEET)는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COVID-19(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하였던 2020년 청년 니트의 수는 172.3만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하여야 할 비구직 니트 역시 사상 최대치인 128.2만 명을 기록하였다. 비구직 니트는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전년도에 비해 16.6만 명 증가한 것으로, 해당 청년 인구가 14.2만 명 감소한 가운데 발생한 이례적인 변화이다.

코로나19에 비견될 정도의 충격에 해당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을 이후부터 2020년까지 22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 이들은 비경험자들에 비해 고용의 양과 고용의 질 그리고 임금에 있어 열등한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1998년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도 계속 비구직니트를 경험한 청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비구직 니트 비경험자들과의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비구직 니트를 일시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임을 알려준다.

주요 용어 : 청년 니트, 비구직 니트, 코로나19 충격, 노동시장 성과

I. 서론

청년 니트(NEET)의 문제는 이미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게 되었다. 한국의 청년 니트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에도 특히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처음 알려진 이후,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의 COVID-19(코로나19) 충격은 노동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를 비롯한 노동시장 주요 지표들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충격은 청년 노동시장에도 중요한 변화들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청년 니트 역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충격을 전후하여 청년 니트, 특히 구직활동조차 하고 있지 않은 청년 비구직 니트의 규모와 특성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청년 비구직 니트 규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청년 인구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감소와 더불어 100만 명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구조적으로 추가적인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던 청년 비구직 니트는, 그러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충격은 이러한 추세변화와 함께 비구직 니트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켰을 수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청년고용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청년과 국가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

비구직 니트 문제는 청년기에 잠시 발생하였다가 이후에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성과가 저조하게 되며¹⁾, 청년 니트가 중년 니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²⁾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으로 인해 청년 비구직 니트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러한 시기에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게 된 청년은 별 충격이 없는 평상시에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는 경우와 구분되는 결과를 장차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겪게 될 미래의 결과들을 알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은 청년 니트와 비구직 니트의 규모 변화에 대해 대표성이 높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아울러 청년 비구직 니트의 구성과 특성들을 살펴보고 중년 니트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 본 연구는 경제에 그리 큰 충격이 없었던 시기를 택해 비구직 니트 경험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분석한다. 제4장은 경제에 큰 충격이 있었던 시기에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였던 청년들을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관찰함으로써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다. 제5장은 이상의 분석과 그 결과들을 요약하고 연구를 결론짓는다.

II. 청년 니트의 현황

1. 청년 니트의 규모

우리나라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 활동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는 통계청이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이다. 이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면 청년의 니트(NET)³⁾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청년 니트의 규모에 대한 장기 시계열을 얻을 수도 있다. <표 1>

1) 남재량(2013).

2) 남재량(2019).

3)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니트(NET)의 개념은 남재량(2006)의 정의에 입각하고 있다. 즉 본고에서 니트라 함은 일을 하거나 통학을 하지도 않고 가사노동(육아, 가사 등)을 하고 있지도 않으며, 배우자

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파악한 청년 니트의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결과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2021년 전망치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20년 15~34세 청년 니트의 수는 무려 172.3만 명이나 된다. 이는 전년도 157.8만 명에 비해 14.5만 명 증가한 것이다. 2021년 1~8월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1년 청년 니트는 177.3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니트(NEET)는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와 그렇지 않은 ‘비구직 니트’로 구분되는데, 구직 니트는 대부분 실업자에 해당하므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비구직 니트이다. 실제로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청년 비구직 니트의 지속적인 증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15~34세의 청년 비구직 니트는 <표 1>에서 보듯이 2020년에 사상 최대인 128.2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의 111.6만 명에 비해 16.6만 명 증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2020년 청년 비구직 니트 증가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20년의 비구직 니트 증가는 2017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는 비구직 니트의 변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2020년의 비구직 니트는 2016년의 경우에 비해 30.3만 명 증가한 것인데, 이 가운데 2019년까지 3년 동안 증가 폭은 연평균 4.6만 명에 그친다. 2020년의 청년 비구직 니트 증가 폭인 16.6만 명은 이러한 추세에서 12만 명이나 벗어나 있다. 2016년 이후의 비구직 니트 증가추세가 그대로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우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비구직 니트를 12만 명 증가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1> 니트(NEET) 현황 및 15~34세 인구

(단위 : 천명)

	2000	2010	2016	2019	2020	2021P	2021년 1~8월	증감	
								‘20-’19	‘20-’16
니트(NEET)	877	1,344	1,467	1,578	1,723	1,773	1,182	145	256
구직니트	411	372	488	462	441	452	301	-21	-47
비구직니트	466	972	979	1,116	1,282	1,321	881	166	303
니트 아님	14,582	12,248	11,555	10,756	10,468	10,328	6,886	-287	-1,087
15-34세 인구	15,459	13,593	13,022	12,334	12,191	12,101	8,068	-142	-831
니트 비율	5.7	9.9	11.3	12.8	14.1	14.7	14.7	1.3	2.9
비구직니트 비율	3.0	7.2	7.5	9.0	10.5	10.9	10.9	1.5	3.0

단, 표에서 ‘2021P’는 2021년 전망치이며,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추세가 12월까지 계속될 경우 각 변수에 대한 2021년 예측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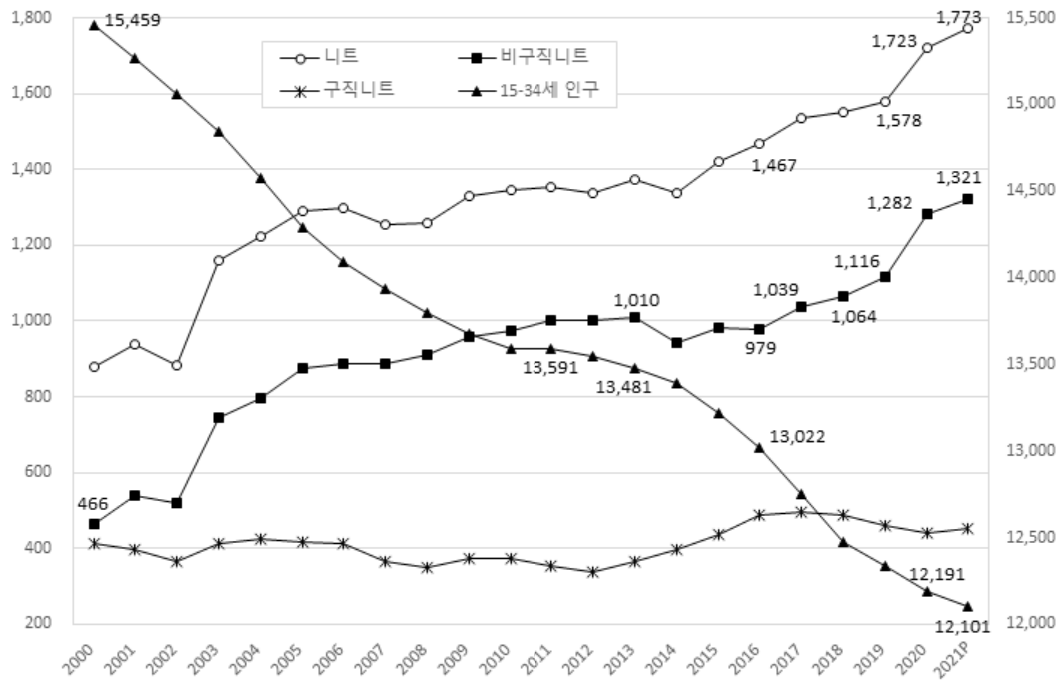
도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4) 2021년 1~8월 청년 니트의 수는 118.2만 명이며, 이러한 변화가 9~12월까지 계속된다면, 2021년 청년 니트는 177.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에 제시된 다른 변수들의 2021년 전망치(2021P)들도 마찬가지로 계산한 결과들이다.

5) 남재량(2006).

[그림 1] 청년 니트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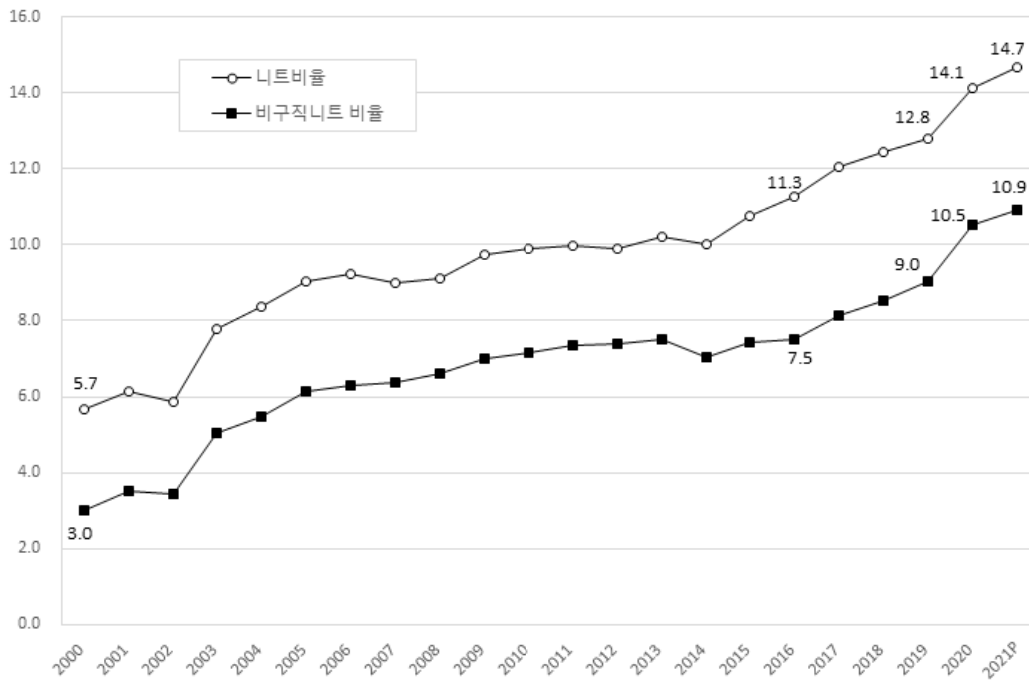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청년 니트 및 비구직 니트 비율

(단위 :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청년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비추어 볼 때 놀랄만한 변화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6년의 15~34세 청년 인구는 1,302.2만 명인데, 이후에서 특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의 청년 인구는 2016년에 비해 83.1만 명 감소한 1,219.1만 명에 불과하다. 이는 2019년에 비해서도 14.2만 명 감소한 것이다. 즉 2020년의 청년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14.2만 명이나 감소한데 반해, 청년 비구직 니트는 오히려 16.6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변화이다.

이에 따라 비구직 니트가 해당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비구직 니트 비율’이 2020년에 10.5%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10% 수준에 진입하였다(그림 2). 이는 <표 1>에서 보듯이 2019년에 비해 1.5% 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2016년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결과이다.

2. 청년 니트의 구성

비구직 니트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2>에서 보듯이 2000년만 하더라도 남성이 72.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 수치가 2020년에 59.0%로 하락한다. 여성 비율이 동일 기간 동안 27.8%에서 41.0%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0년의 여성 비구직 니트는 14.0만 명 증가하여 3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증가율 27.5% 보다 더 크다. 2019년에 비해서도 비구직 니트 증가율은 여성의 경우 15.2%로서 남성의 14.7%를 능가한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25~29세와 30~34세의 비구직 니트 증가가 현저하다. 비구직 니트 가운데 15~19세와 20~24세 비율은 지난 20여 년 동안 크게 감소한 반면, 25~29세와 30~34세의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0년의 25~29세 비구직 니트는 20.8만 명, 67.3% 증가하였고 30~34세의 경우도 40.2%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변화에 있어서도 25~29세의 비구직 니트는 10.3만 명, 24.8% 증가하였다. 30~34세에서도 13.4% 증가하였다.⁶⁾ 요컨대 비구직 니트에 대한 이후의 분석에 있어 연령별로 볼 때, 우리는 25~29세 또는 25~34세 집단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력 집단별로 볼 때, 대졸 이상 집단의 비구직 니트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비구직 니트 가운데 대졸 이상 학력 집단의 비중은 2000년에 15.8%에 머물렀으나, 2020년에 32.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신 중졸 이하 집단의 비중이 동일 기간 동안 12.1%에서 3.3%로 감소하였고 고졸 집단 비중도 61.9%에서 49.4%로 크게 줄어들었다. 전문대졸 집단의 비중은 10.2%에서 14.8%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6~2020년 기간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비구직 니트 규모는 중졸 이하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졸 이상 학력 집단에서 21.5% 증가한 것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비구직 니트 비중이 증가한 학력 집단은 대졸 이상이 유일하다(1.8% 포인트 증가).

비구직 니트의 수를 해당 인구의 수로 나누어 인구 변화를 통제한 ‘비구직 니트 비율’을 보면, 여

6) 2020년의 15~19세 비구직 니트도 2019년에 비해 18.7% 증가하였으나, 그 규모가 1.9만 명으로 크지 않다. 20~24세의 경우는 증가율도 4.6%로 낮고 증가 규모도 1.9만 명에 그친다.

성 비구직 니트 비율이 2000년 1.6%에서 2020년 8.8%로 450% 증가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2016~2020년의 기간에서도 여성 비구직 니트 비율 증가율이 46.4%로 남성의 경우보다 더 크며, 2019년과 비교하더라도 16.6%로 남성의 경우를 능가한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비구직 니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25~29세 집단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증가율로 본다면, 30~34세 집단의 경우가 2000년을 기준으로 하든 2016년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오히려 더 높다.⁷⁾ 학력별로 보면, 모든 학력 집단에서 2020년의 비구직 니트 비율이 2000년에 비해 더 크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문대졸의 경우가 두드러지며,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대졸 이상과 전문대졸 집단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난다.

<표 2> 비구직 니트(15~34세)의 인구집단별 규모와 구성비 및 변화

(단위 : 천명, %)

		2000	2010	2015	2016	2019	2020	증감 및 변화율			
								'20-'19		'20-'16	
								증감	%	증감	%
계		466	972	983	979	1,116	1,282	166	14.9	303	31.0
규모	남성	337	611	607	593	659	756	97	14.7	163	27.5
	여성	130	361	376	386	457	526	69	15.2	140	36.3
구성비	남성	72.2	62.8	61.7	60.6	59.1	59.0	-0.1		-1.6	
	여성	27.8	37.2	38.3	39.4	40.9	41.0	0.1		1.6	
규모	15-19	103	129	116	121	100	119	19	18.7	-2	-1.3
	20-24	196	349	416	395	411	430	19	4.6	35	8.8
	25-29	122	349	304	310	415	518	103	24.8	208	67.3
	30-34	45	145	148	153	190	215	25	13.4	62	40.2
구성비	15-19	22.1	13.3	11.8	12.3	9.0	9.3	0.3		-3.0	
	20-24	42.0	35.9	42.3	40.4	36.8	33.5	-3.3		-6.8	
	25-29	26.2	35.9	30.9	31.6	37.2	40.4	3.2		8.8	
	30-34	9.6	14.9	15.0	15.7	17.0	16.8	-0.2		1.1	
규모	중졸 이하	56	62	54	48	45	42	-2	-5.5	-6	-11.6
	고졸	288	546	532	534	562	633	71	12.6	99	18.5
	전문대졸	48	120	127	116	167	190	24	14.2	74	63.5
	대졸 이상	74	244	270	280	342	416	74	21.5	136	48.6
구성비	중졸 이하	12.1	6.4	5.5	4.9	4.0	3.3	-0.7		-1.6	
	고졸	61.9	56.2	54.1	54.6	50.4	49.4	-1.0		-5.2	
	전문대졸	10.2	12.3	13.0	11.9	14.9	14.8	-0.1		3.0	
	대졸 이상	15.8	25.0	27.4	28.6	30.7	32.4	1.8		3.9	

7) 다만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기간인 2019~2020년을 보면, 15~19세 집단의 비구직 니트 증가율이 가장 크다.

<표 3> 비구직 니트 비율 및 변화 : 15~34세

(단위 : %)

	2000	2010	2015	2016	2019	2020	증감 및 변화율			
							'20-'19		'20-'16	
							증감	%	증감	%
남성	4.5	9.0	9.1	9.0	10.5	12.2	1.7	15.9	3.2	35.5
여성	1.6	5.3	5.7	6.0	7.5	8.8	1.2	16.6	2.8	46.4
15-19	2.7	3.8	3.7	3.9	3.8	4.9	1.0	26.7	0.9	23.5
20-24	6.2	13.5	13.7	13.0	14.0	14.9	0.9	6.3	2.0	15.1
25-29	2.9	9.2	9.5	9.5	11.8	14.5	2.7	22.6	4.9	51.9
30-34	1.1	3.8	3.9	4.2	5.8	6.6	0.8	13.1	2.4	56.4
중졸 이하	1.7	2.2	2.2	1.9	2.2	2.2	0.1	3.4	0.3	15.0
고졸	3.5	10.1	10.6	10.8	11.7	13.0	1.4	11.6	2.2	20.3
전문대졸	3.0	5.2	6.2	5.9	9.2	10.7	1.4	15.7	4.7	80.0
대졸 이상	3.3	7.9	7.4	7.7	9.5	11.4	2.0	21.0	3.7	48.6

3. 25~34세 연령층의 비구직 니트

연령층별로 볼 때, 특히 25~29세와 30~34세 집단의 비구직 니트 문제에 분석을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비구직 니트 규모가 크고 비중도 높으며, 증가의 정도도 크다. 뿐만 아니라 25~29세는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연령층에 해당하고 30~34세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지 오래되지 않은 연령층이므로, 이들이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후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연령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추가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표 4>와 <표 5>는 이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25~34세 연령층의 비구직 니트 규모는 여성에서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2000년과 2016년 그리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에서 공통으로 관찰된다. 반면 학력 집단별로 보면, 중졸 이하를 제외한 모든 학력 집단들에서 비구직 니트의 증가가 현저하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의 비구직 니트는 대졸 이상에서 52.8% 증가하였으며, 고졸에서 62.9%, 그리고 전문대졸에서 77.5% 증가하였다. 2019년과 비교하면 대졸 이상 집단에서 7.0만 명, 즉 24.8% 증가하였고 고졸에서 4.1만 명, 20.7% 증가하였으며 전문대졸에서 1.8만 명, 17.4% 증가하였다.

비구직 니트 비율로 보면, 성별로 볼 때 여성의 증가가 다소 높은 반면, 학력별로 보면, 2016년 이후의 변화는 중졸 이하 집단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력 집단들에서 두드러진다. 2016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대졸 이상과 고졸 그리고 전문대졸에서 각각 50.6%와 65.6% 그리고 88.0%로 높다. 2019년과 비교하면, 대졸 이상에서 비구직 니트 비율 증가율이 24.0%로 가장 높고 고졸이 18.6%로

서 그 다음이며 전문대졸의 경우는 15.0%이다.

요컨대 25~34세 연령층으로 논의를 제한한다면, 여성의 비구직 니트 증가 정도가 다소 더 빠르며, 학력별로 볼 때 중졸 이하를 제외한 고졸 이상 학력 집단에서 비구직 니트 증가가 현저하다.

<표 4> 비구직 니트(25~34세)의 인구집단별 규모와 구성비 및 변화

(단위 : 천명, %)

	2000	2010	2015	2016	2019	2020	'20-'19		'20-'16	
							증감	%	증감	%
남성	127	323	289	290	371	447	76	20.5	157	54.3
여성	40	171	163	173	233	285	52	22.3	112	65.1
중졸 이하	13	21	17	16	19	18	-1	-5.6	2	12.2
고졸	72	200	152	147	198	239	41	20.7	92	62.9
전문대졸	25	79	70	69	104	122	18	17.4	53	77.5
대졸 이상	57	194	213	232	284	354	70	24.8	122	52.8

<표 5> 비구직 니트(25~34세) 비율 및 변화

(단위 : %)

	2000	2010	2015	2016	2019	2020	'20-'19		'20-'16	
							증감	%	증감	%
남성	2.9	8.2	7.9	8.0	10.3	12.3	2.0	18.9	4.3	53.0
여성	1.0	4.6	4.8	5.2	7.3	8.8	1.6	21.4	3.6	69.1
중졸 이하	2.2	12.9	14.2	13.3	12.4	12.8	0.4	3.6	-0.5	-3.8
고졸	1.5	7.2	7.3	7.5	10.4	12.4	1.9	18.6	4.9	65.6
전문대졸	2.3	4.2	4.4	4.5	7.3	8.4	1.1	15.0	3.9	88.0
대졸 이상	2.9	6.9	6.5	7.0	8.5	10.6	2.0	24.0	3.6	50.6

4. 비구직 니트의 활동상태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 비구직 니트들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표 6>은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의 활동상태는 '취업 준비'와 '쉬었음'에 집중되어 있다. 2020년에 이들 둘의 비율을 합치면 90%를 넘는다. 비구직 니트 가운데 일부 표본이 이 질문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겠으나, 청년 비구직 니트들은 학교나 학원 등에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다가 쉬었다가 하는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표 6> 비구직 니트의 활동상태

(단위 : 천명,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규모	취업준비	187	206	249	265	276	322
	진학준비	19	23	18	19	16	22
	심신장애	25	25	33	38	35	34
	군입대대기	1	1	0	0	1	1
	쉬었음	180	176	183	189	239	325
	기타	24	17	12	16	19	12
	계	435	447	496	527	586	715
구성비	취업준비	42.9	46.0	50.2	50.3	47.2	45.0
	진학준비	4.3	5.1	3.7	3.5	2.6	3.0
	심신장애	5.8	5.5	6.6	7.2	6.0	4.7
	군입대대기	0.1	0.3	0.1	0.1	0.2	0.1
	쉬었음	41.3	39.3	36.9	35.9	40.7	45.5
	기타	5.6	3.8	2.5	3.0	3.2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청년 니트와 중년 니트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비단 청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중년층에도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표 7>은 10세를 단위로 하여 구분한 연령 계층별 비구직 니트의 규모와 비구직 니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연령 계층별 비구직 니트의 규모와 비구직니트 비율 및 그 변화

(단위 : 천명, %)

		2000	2010	2015	2016	2019	2020	'20-'19		'20-'16	
								증감	%	증감	%
규모	10대	103	129	116	121	100	119	19	15.8	-2	-1.3
	20대	318	698	720	705	826	948	122	12.8	243	34.5
	30대	68	254	262	273	337	386	49	12.7	113	41.4
	40대	33	140	184	195	223	271	48	17.6	76	38.8
	50대	27	91	162	170	236	259	23	8.9	89	52.5
비율	10대	2.7	3.8	3.7	3.9	3.8	4.9	1.0	26.7	0.9	23.5
	20대	4.3	10.9	11.5	11.2	12.8	14.7	1.9	14.4	3.5	31.1
	30대	0.8	3.1	3.4	3.6	4.6	5.4	0.8	16.8	1.8	50.7
	40대	0.5	1.6	2.1	2.3	2.7	3.3	0.6	22.3	1.0	45.4
	50대	0.6	1.3	2.0	2.1	2.8	3.0	0.3	9.6	1.0	47.6

이 표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의 증가는 1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50대 모두에 걸쳐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2016~2020년 동안 비구직 니트 증가율은 50대에서 52.5%로 가장 높으며, 30대가 41.4%로 그다음이며, 40대가 38.8%, 그리고 20대가 34.5%를 기록하고 있다. 비구직 니트 비율의 증가율로 보더라도 30대가 가장 높고 50대와 40대가 그다음이며 10대를 논외로 한다면 20대가 가장 낮다. 결국 비구직 니트 증가의 문제는 비단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에서도 관찰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III.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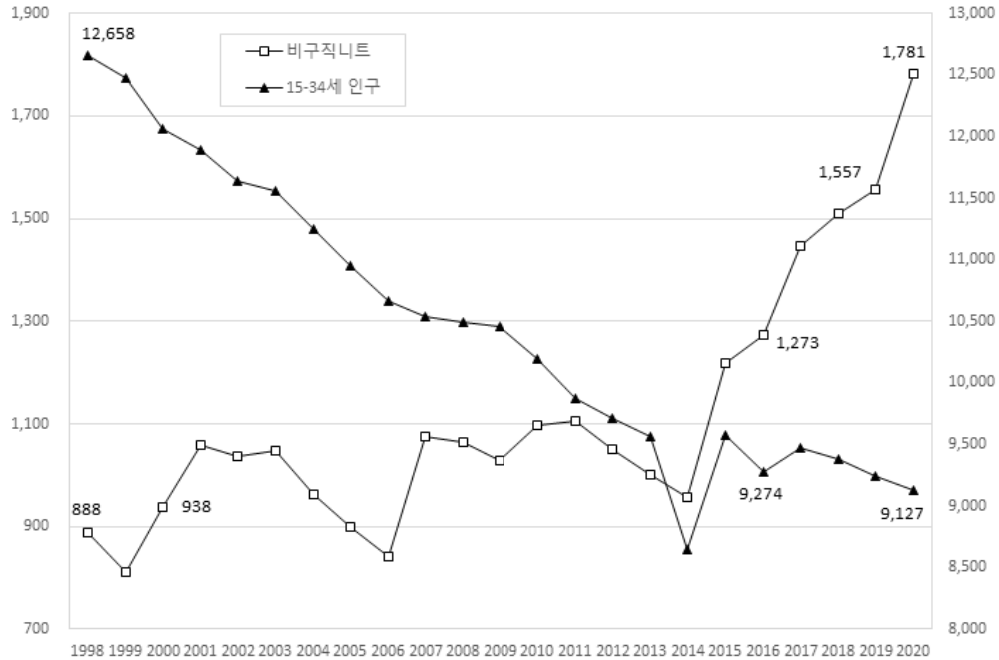
1.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와 청년 니트

이제 본 연구의 분석, 특히 비구직 니트 경험자들의 장기 추적 관찰에 사용될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data)를 사용하여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 평가하도록 하자. 먼저 KLIPS 상에 나타나는 비구직 니트와 청년의 규모 및 이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자. [그림 3]은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먼저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 규모는 2020년에 178.1만 명으로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2019년의 155.7만 명에 비해 22.4만 명 증가하였다. 이러한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 규모는 앞에서 살펴 보았던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비구직 니트 규모인 132.1만 명보다 46.0만 명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증가 폭도 경찰 상의 14.5만 명을 크게 능가한다. 이러한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 규모는 2015년 이후, 특히 2017년 이후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지만, 2020년의 증가는 매우 두드러진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더 이상의 청년 비구직 니트 증가가 어려운 구조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청년 비구직 니트 및 청년 인구(15~34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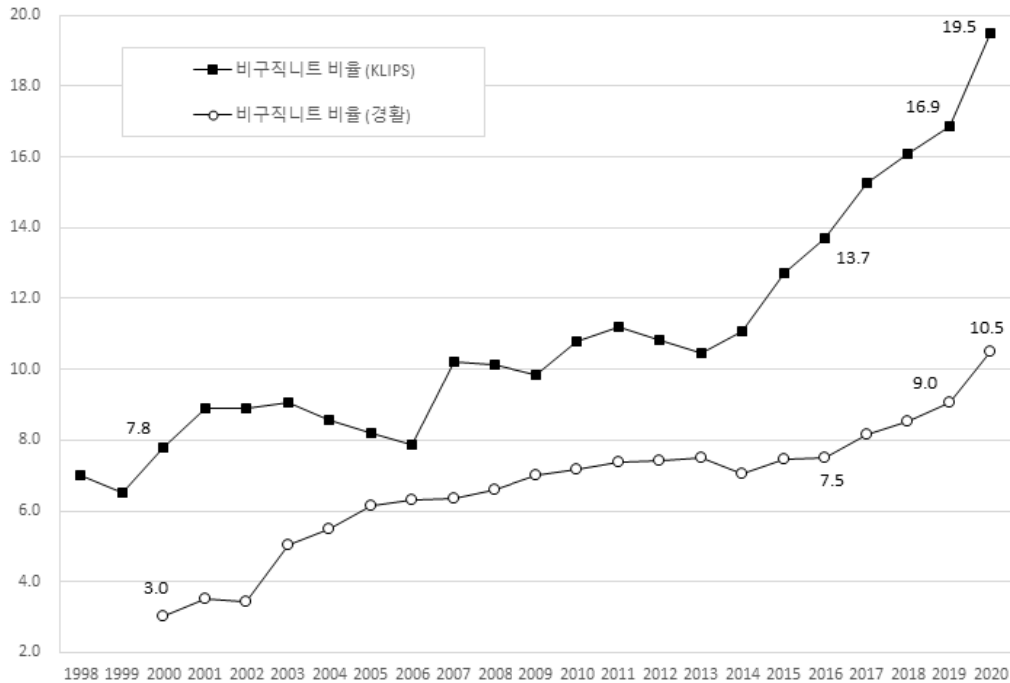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이처럼 청년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 비구직 니트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비구직 니트 비율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20년 비구직 니트 비율이 무려 19.5%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9년의 16.9%에 비해 한 번에 2.6% 포인트 증가한 것이며, 2016년 13.7%에 비해 5.8% 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는 경찰 상의 2020년 비구직 니트 비율 10.5%의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그림 4] KLIPS 상의 비구직니트 비율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상의 결과와 비교

(단위 : %)



2.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

이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어떠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경제에 별다른 충격이 없었던 평소 시기를 택해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가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알아보자. 이러한 평소 시기에 해당하면서 이후 개인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가장 오랫동안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 외환위기에 거의 벗어난 2000년이나 2001년 정도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연도를 택해 각 연도 또는 두 연도에 연속하여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어떠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를 위해 최대 20년 동안 동일한 개인들을 추적 관찰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가. 고용의 양적인 성과

<표 8>은 2000년(KLIPS 3차조사) 비구직 니트 경험자를 20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그 노동시장 성과를 경제활동상태의 측면에서 비경험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표는 청년을 연령 집단별로 구분하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보았듯이 청년층도 세부 연령 집단별로 서로 구분되는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표 8>은 경제활동상태

를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비경활)로 구분하고 이들이 해당 연령층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취업자 비율’, ‘실업자 비율’, 그리고 ‘비경활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이 표의 가장 오른쪽 열(column)에 있는 ‘차이’는 경제활동상태로 본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해당 연령층 비경험자의 그것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0년에 15~34세 청년층 가운데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의 5년 후 취업자 비율은 53.9%로서 비경험자의 61.7%보다 7.8% 포인트 낮다. 이러한 상황은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이며, 15년 후에도 이 비율은 65.7%에 불과하여 비경험자의 76.5%에 10.8% 포인트나 뒤진다. 20년 후 취업자 비율은 62.5%와 75.9%로서 그 격차는 13.4%로 더욱 벌어진다. 이러한 취업자 비율의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별 차이는 20년 평균으로 볼 때 12.2% 포인트에 달한다. 반면 비경활 비율은 비구직 니트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20년 평균 10.3% 포인트 더 높다. 이러한 격차는 15~24세를 제외한 25~34세 청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표 8> 3차 조사(2000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 추적관찰 결과

(단위 :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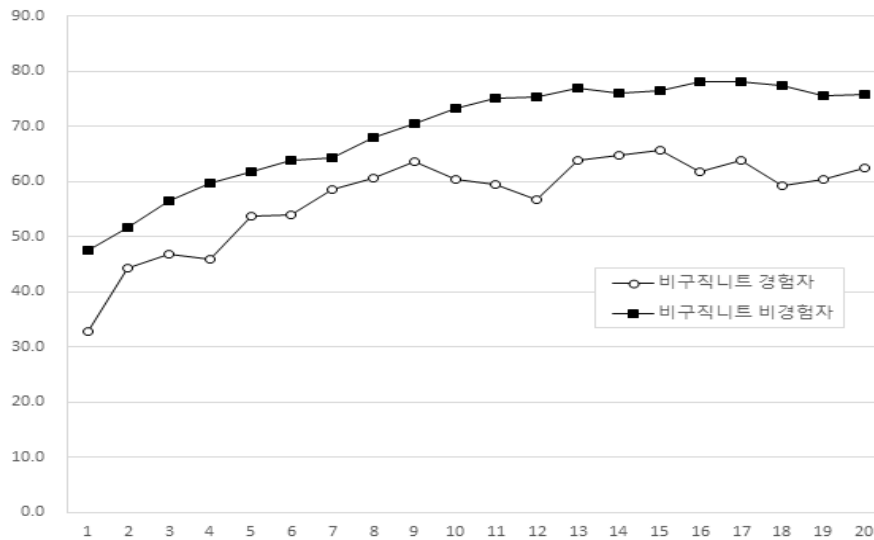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경제활동상태 비율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평균	차이*
15- 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32.9	53.9	60.4	65.7	62.5	57.0	-12.2
		실업자 비율	5.8	11.5	2.8	1.3	0.0	4.2	1.9
		비경활 비율	61.3	34.6	36.8	33.0	37.5	38.9	10.3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47.5	61.7	73.3	76.5	75.9	69.1	-
		실업자 비율	2.8	3.7	1.7	0.9	1.0	2.3	-
		비경활 비율	49.8	34.5	24.9	22.6	23.1	28.6	-
25- 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29.2	55.2	54.5	66.2	67.1	56.3	-17.7
		실업자 비율	6.0	9.5	4.2	2.4	0.0	3.8	2.0
		비경활 비율	64.8	35.3	41.3	31.3	32.9	39.9	15.7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5.6	68.9	76.3	77.0	75.6	74.0	-
		실업자 비율	2.7	3.1	0.8	0.5	1.1	1.8	-
		비경활 비율	31.7	28.0	22.9	22.5	23.3	24.2	-
25- 29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24.3	57.7	53.2	74.1	76.1	59.1	-12.2
		실업자 비율	5.3	12.8	5.5	3.5	0.0	4.7	2.6
		비경활 비율	70.4	29.4	41.3	22.4	23.9	36.1	9.6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2.7	65.9	71.2	76.7	72.8	71.4	-
		실업자 비율	2.9	3.9	0.5	1.1	1.4	2.1	-
		비경활 비율	34.4	30.2	28.3	22.1	25.8	26.5	-

단, 표에서 ‘취업자 비율’, ‘실업자 비율’, ‘비경활 비율’은 각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표에서 ‘차이’는 해당 연령층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각 경제활동상태 비율의 차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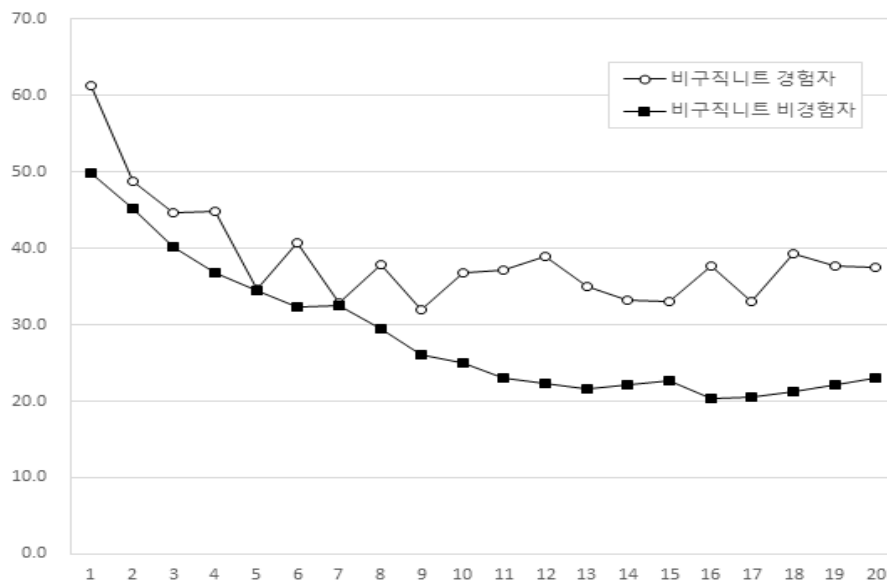
이러한 모습은 [그림 5]와 [그림 6]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두 그림에서 보듯이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의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은 분석 기간 내내 비경험자의 경우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러한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경제활동상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시장 성과가 이후 20년 동안 항구적으로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5] 3차조사(2000년) 비구직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취업자 비율 : 15~34세
(단위 : %)



[그림 6] 3차조사(2000년) 비구직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경활 비율 : 15~34세
(단위 : %)



<표 9> 4차 조사(2001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 추적관찰 결과

(단위 : %, % 포인트)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경제활동 상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19년 후	평균	차이*
1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32.8	52.0	63.6	62.6	54.6	55.2	-13.8
		실업자 비율	6.8	4.5	3.4	1.4	1.1	3.6	1.1
		비경활 비율	60.4	43.5	33.0	36.0	44.3	41.2	12.6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47.5	62.1	73.9	77.4	76.9	69.0	-
		실업자 비율	2.9	3.9	1.7	1.4	1.2	2.5	-
		비경활 비율	49.5	34.0	24.4	21.2	21.9	28.6	-
2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40.9	53.8	56.6	52.7	46.9	52.4	-22.0
		실업자 비율	7.7	3.4	4.6	2.0	0.0	3.6	1.7
		비경활 비율	51.4	42.9	38.7	45.3	53.1	44.0	20.3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4.7	69.3	78.2	79.6	76.6	74.3	-
		실업자 비율	3.1	2.8	0.8	1.3	1.5	1.9	-
		비경활 비율	32.2	28.0	21.0	19.1	22.0	23.7	-
25~29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47.0	64.7	68.3	64.4	53.4	60.8	-11.9
		실업자 비율	7.1	3.8	6.6	2.2	0.0	3.9	1.8
		비경활 비율	45.9	31.5	25.1	33.4	46.6	35.3	10.1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2.9	67.2	74.9	79.9	76.9	72.7	-
		실업자 비율	3.3	3.4	0.2	0.1	1.5	2.1	-
		비경활 비율	33.8	29.4	24.9	20.0	21.5	25.2	-

단, 표에서 ‘취업자 비율’, ‘실업자 비율’, ‘비경활 비율’은 각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표에서 ‘차이’는 해당 연령층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각 경제활동상태 비율의 차이임.

이제 KLIPS 4차 조사인 2001년에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자. <표 9>에서 보듯이 15~34세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취업자 비율은 19년 평균 55.2%로서 비경험자의 69.0%에 13.8% 포인트 미치지 못하며, 비경활 비율은 12.6% 포인트 더 높다. 이는 <표 8>에서 본 2000년(3차 조사)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결과보다도 더 열악한 성과이다. 이러한 보다 열악한 성과는 25~34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비구직 니트 경험이 이후 경제활동에 있어 사실상 항구적으로 열악한 성과로 이어지며 이러한 열악한 성과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악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에 정착하는 초기에 해당하는 25~34세 연령층에서 이러한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다만 성과의 저조한 정도는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는 시기에 따라 그리고 청년층의 세부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표 10> 3~4차 조사(2000~2001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 추적관찰 결과
(단위 : %, % 포인트)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경제활동상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19년 후	평균	차이*
1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29.7	41.9	45.1	44.0	45.4	43.5	-25.1
		실업자 비율	7.8	1.4	5.3	0.9	0.0	3.4	0.8
		비경활 비율	62.5	56.6	49.6	55.1	54.6	53.2	24.3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46.8	61.7	73.9	77.3	75.9	68.6	-
		실업자 비율	3.1	4.1	1.7	1.4	1.2	2.5	-
		비경활 비율	50.1	34.2	24.4	21.3	22.9	28.9	-
2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30.1	39.5	41.3	43.0	52.6	43.1	-30.7
		실업자 비율	12.8	0.0	7.9	0.0	0.0	2.9	0.9
		비경활 비율	57.1	60.5	50.8	57.0	47.4	54.0	29.7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4.0	69.1	77.9	79.0	75.0	73.8	-
		실업자 비율	3.1	2.9	0.8	1.4	1.4	2.0	-
		비경활 비율	32.8	28.0	21.3	19.7	23.6	24.2	-
25~29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38.2	65.6	64.0	66.7	82.8	63.0	-8.7
		실업자 비율	13.0	0.0	13.4	0.0	0.0	4.3	2.2
		비경활 비율	48.8	34.4	22.6	33.3	17.2	32.7	6.6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2.2	67.0	74.6	78.7	73.0	71.7	-
		실업자 비율	3.3	3.5	0.3	0.3	1.4	2.2	-
		비경활 비율	34.5	29.4	25.0	21.0	25.6	2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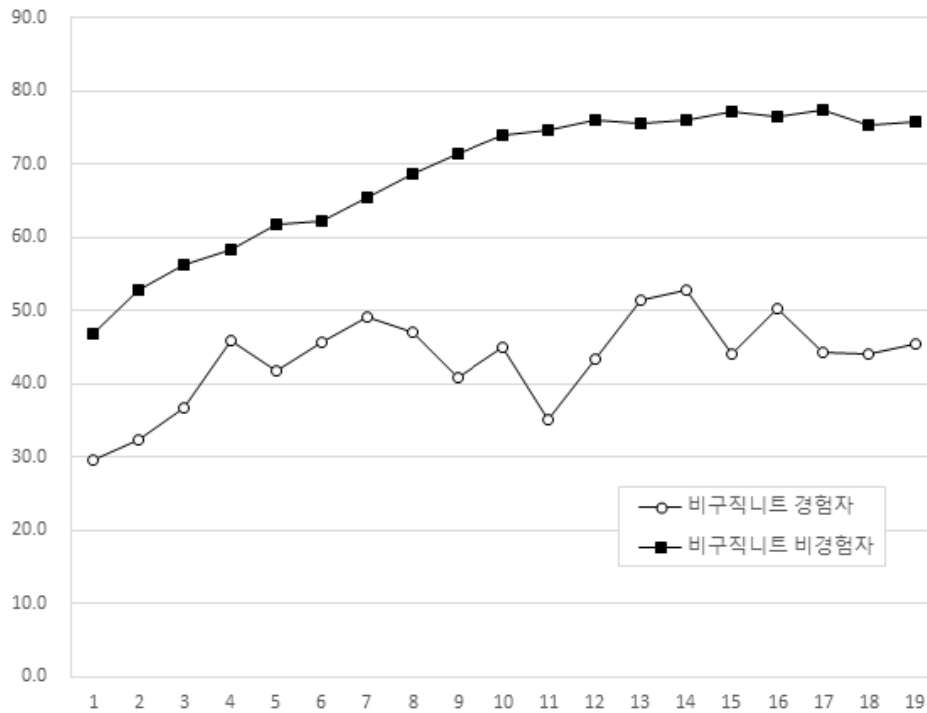
단, 표에서 ‘취업자 비율’, ‘실업자 비율’, ‘비경활 비율’은 각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표에서 ‘차이’는 해당 연령층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각 경제활동상태 비율의 차이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3차와 4차 조사, 즉 2000년과 2001년에 연속적으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였던 청년의 이후 경제활동상태를 추적 관찰하여 보자. <표 10>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취업자 비율은 15~34세에서 19년 평균 43.5%인데, 이는 비경험자의 68.6%에 비해 무려 25.1% 포인트나 낮고 비경활 비율은 24.3% 포인트나 더 크다. [그림 7]과 [그림 8]을 보면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이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분석 기간 전체에서 항구적으로 더 낮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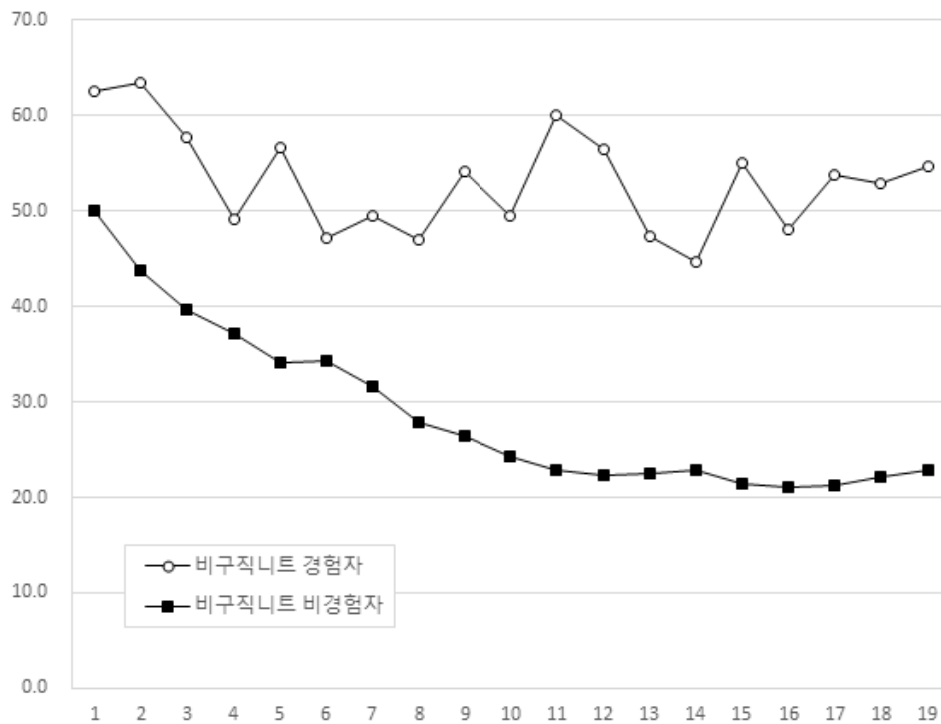
분석 대상을 25~34세로 제한할 경우 취업자 비율 격차와 비경활 비율 격차는 <표 10>에서 보듯이 각각 30.7% 포인트와 29.7% 포인트로 더욱 커진다. 다만 25~29세의 경우 취업자 비율 차이와 비경활 비율 차이는 각각 8.7% 포인트와 6.6% 포인트로서 2000년이나 2001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경우보다 그 격차가 더 작다.⁸⁾

8) 25~29세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작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다.

[그림 7] 3~4차 조사(2000~01년) 비구직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취업자 비율 : 15~34세
(단위 : %)



[그림 8] 3~4차 조사(2000~01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경활 비율 : 15~34세
(단위 : %)



나. 고용의 질적인 성과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추적 관찰은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에 해당하므로, 이제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 분석하기로 하자. 고용의 질은 종사상의 지위와 근로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의 비율과 정규직의 비율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표 11>과 <표 12>는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먼저 상용직 비율을 보면, 4차 조사인 2001년의 25~29세의 경우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경우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상용직 비율이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더 작다. 특히 2000년 경험자들에서 이러한 격차가 심하며 2001년 경험자들의 경우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앞에서 보았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추적 관찰 결과와 결합하여 생각하면, 고용의 양적인 성과와 질적인 성과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경제활동상태라는 고용의 양적인 측면에서 더 열악하였던 2001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들의 고용의 질은 2000년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반면 2000년과 2001년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상용직 비율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아, 이들은 고용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근로의 형태로 살펴본 고용의 질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표 12>에서 보듯이 2000년 3차 조사에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사람들에 비해 2001년 4차 조사에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15~34세와 25~29세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정규직 비율이 오히려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다소 높을 뿐만 아니라 25~34세에서도 그 차이가 -1.4% 포인트로서 절대값으로 그리 크지 않다. 반면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정규직 비율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5.5~8.7% 포인트 더 낮다.

<표 11>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종사상의 지위 추적관찰 결과 : 상용직 비율

(단위 : %, % 포인트)

기준시점	연령 계층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차이*
		경험자	비경험자	
3차 조사 (2000년)	15-34세	56.7	68.7	-12.1
	25-34세	49.9	64.2	-14.3
	25-29세	49.9	70.7	-20.8
4차 조사 (2001년)	15-34세	66.7	69.3	-2.6
	25-34세	64.5	64.9	-0.4
	25-29세	71.0	70.3	0.7
3~4차 조사 (2000~2001년)	15-34세	56.2	69.3	-13.2
	25-34세	48.6	65.2	-16.7
	25-29세	51.6	71.2	-19.6

단, 표에서 '차이'는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상용직 비율의 차이임. 표에서 3차 조사는 20년 후까지 그리고 4차 조사와 3~4차 조사 경우의 19년 후까지 추적한 결과를 각각 평균한 것임.

<표 12>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근로 형태 추적관찰 결과 : 정규직 비율

(단위 : %, % 포인트)

기준시점	연령 계층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차이*
		경험자	비경험자	
3차조사 (2000년)	15-34세	69.3	76.6	-7.3
	25-34세	64.8	74.9	-10.1
	25-29세	61.6	77.5	-15.9
4차조사 (2001년)	15-34세	77.4	76.5	0.8
	25-34세	73.9	75.3	-1.4
	25-29세	80.7	78.1	2.6
3~4차조사 (2000~2001년)	15-34세	71.2	76.7	-5.5
	25-34세	66.7	75.3	-8.7
	25-29세	71.0	78.5	-7.5

단, 표에서 ‘차이’는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근로형태 비율의 차이임.

다. 임금

비구직 니트 경험자가 취업하고 있을 경우 이들의 임금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일까? 이를 보기 위해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에 대해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를 각각 <표 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먼저 월평균 임금을 보면, 추적 기간 전체에 대해 평균할 경우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월평균 임금이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적게는 11.2%에서 많게는 28.7% 더 작다.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단 한 번⁹⁾을 제외하고는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월평균 임금이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더 낮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상대임금의 변화를 보면,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표에 제시된 모든 경우에 있어 19년 또는 20년 후에도 비경험자의 임금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리고 2년 연속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는 경우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임금 격차가 25세 이상에서 가장 크다.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도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임금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표 14>에서 보듯이 추적 관찰 기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 9.6~27.1% 더 작다. 3차 조사에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경우 시간당 임금이 비경험자의 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들이 다소 있으나¹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은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더 낮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시간당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종 추적 관찰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시간당 임금 추세가 비경험자의 그것을 능가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9)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17년차 추적 임금이 103.8로서 비경험자의 경우(100.0)를 능가한다.

10) <표 14>에서도 3차의 모든 연령 계층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15년 후 추적 관측 시간당 임금이 비경험자의 경우보다 더 높다.

<표 13>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이후 월평균임금의 상대임금

(단위 : %, %p)

기준시점	연령 계층	비구직 니트 경험여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19년 후*	평균	차이
3차	15-34세	경험	76.4	82.0	94.7	99.8	91.4	88.8	-11.2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83.8	77.5	86.5	93.9	75.5	80.5	-19.5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90.7	80.7	74.3	86.3	72.2	78.3	-21.7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차	15-34세	경험	82.0	76.5	83.8	82.9	88.1	84.2	-15.8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79.7	70.2	71.5	69.4	69.3	73.5	-26.5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89.9	72.9	73.6	70.7	66.4	76.4	-23.6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차	15-34세	경험	76.0	68.6	80.8	77.3	95.5	84.3	-15.7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71.3	61.4	64.6	60.6	68.7	71.3	-28.7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81.4	62.6	64.5	62.0	63.6	73.9	-26.1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 표에서 기준이 3차 조사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20년이며, 4차 조사와 3~4차 조사 기준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19년임.

<표 14>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이후 시간당임금의 상대임금

(단위 : %, %p)

기준시점	연령 계층	비구직 니트 경험여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19년 후*	평균	차이
3차	15-34세	경험	92.5	76.5	102.2	110.3	92.0	90.4	-9.6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99.0	68.8	104.0	124.2	80.7	88.7	-11.3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79.5	71.8	88.5	127.1	78.5	87.9	-12.1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차	15-34세	경험	77.8	79.6	77.8	79.6	89.2	81.6	-18.4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78.0	71.7	67.7	64.9	74.1	72.9	-27.1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88.8	74.1	68.1	63.1	70.5	74.4	-25.6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차	15-34세	경험	71.4	64.5	76.4	67.8	96.2	80.9	-19.1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74.9	59.1	59.2	57.8	81.0	73.3	-26.7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84.8	59.7	57.4	55.1	76.9	74.5	-25.5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 표에서 기준이 3차 조사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20년이며, 4차 조사와 3~4차 조사 기준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19년임.

IV. 외환위기 당시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이후 노동시장 성과

우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비구직 니트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음을 제2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충격으로 증가한 청년 비구직 니트들이 이후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될까?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려면 제3장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 자료(data)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과 유사할 정도의 충격을 통해 우리는 이에 대한 평가를 미리 간접적으로 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비구직 니트에 미치게 될 효과를 추정해볼 수 있다. (1) 코로나19에 필적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었고 (2) 그러한 충격이 발생하였을 당시 청년들을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3) 이들의 이후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관찰할 수 있는 자료(data)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일단 코로나19에 버금가는 충격으로 1998년 외환위기를 들 수 있다. 외환위기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¹¹⁾ 사건으로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충격은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2% 수준에 머물던 실업률이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7.7%와 7.0%로 상승하였으며,¹²⁾ 45~46%에 머물던 15~29세 청년고용률은 각각 40.6% 및 40.9%를 기록하였다. 당시는 청년 니트(NEET)라는 용어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이후의 연구에 의하면 외환위기 발생 전 20~30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의 청년 비구직 니트는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40만 명 그리고 5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¹³⁾

1998년은 이처럼 한국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연도이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패널자료(panel data)가 실시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998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제1차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년 동일한 조사를 거듭하여 2021년 24차 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2021년 현재 23차 조사 자료(data)까지 가용하다. 이 조사는 동일한 개인과 가구에 대해 반복해서 조사를 실시하므로 동일한 개체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이 가능하므로, 외환위기 당시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및 이들의 이후 노동시장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외환위기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1998년과 1999년을 대상으로 당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이 이후 어떠한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는데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비경험자의 경우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할 것이다. 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경우 1년 후부터 22년 후까지 추적관찰이 가능하다.

11) 1997년 12월 3일부터 2001년 8월 23일까지이다.

12) 구직기간 1주 기준 비농가 실업률이며, 경제 전체 실업률은 각각 7.0%와 6.3%였다.

13) 남재량(2006).

<표 15> 1차 조사(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경제활동상태 추적관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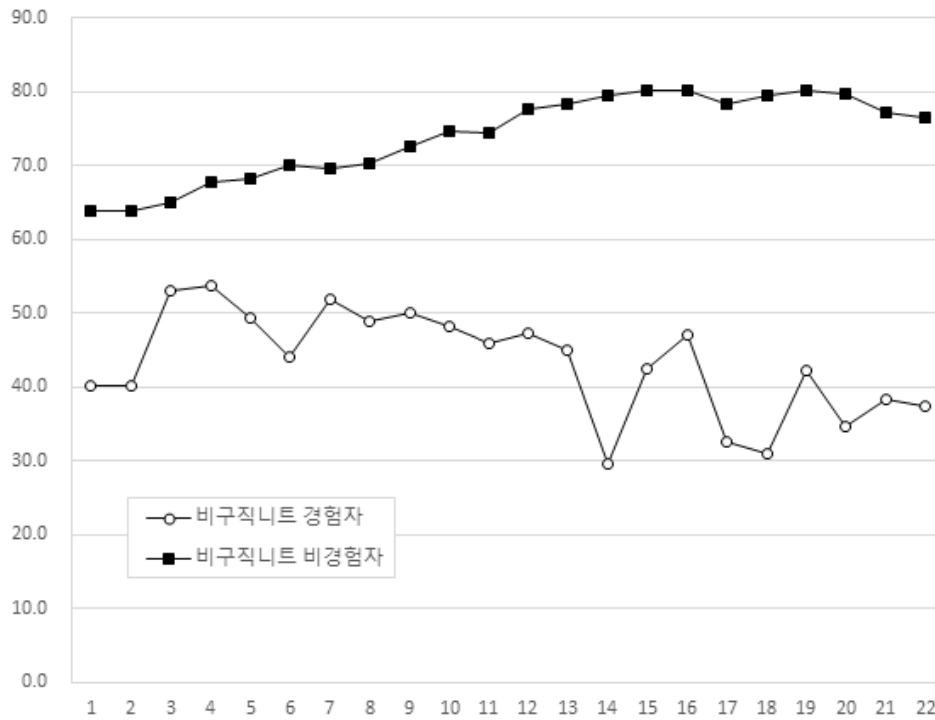
(단위 : %, %p)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경제활동상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2년 후	평균	차이*
1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37.7	54.0	58.3	48.9	46.9	52.4	-17.2
		실업자 비율	10.8	5.0	3.7	1.3	0.0	3.6	1.3
		비경활 비율	51.5	41.0	38.0	49.8	53.1	44.0	15.8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46.4	61.0	71.5	78.9	76.5	69.5	
		실업자 비율	4.2	3.5	2.4	1.0	1.0	2.3	
		비경활 비율	49.4	35.5	26.1	20.1	22.4	28.2	
2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40.3	49.3	48.3	42.6	37.4	43.4	-30.6
		실업자 비율	9.3	5.7	5.0	1.7	0.0	4.1	2.3
		비경활 비율	50.4	44.9	46.7	55.8	62.6	52.5	28.3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4.0	68.2	74.7	80.3	76.5	74.0	
		실업자 비율	4.0	2.7	1.7	1.0	1.0	1.8	
		비경활 비율	32.1	29.1	23.6	18.7	22.4	24.2	
25~29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45.0	51.3	48.8	48.3	42.5	44.7	-26.4
		실업자 비율	8.1	6.8	2.7	0.6	0.0	4.0	1.8
		비경활 비율	46.9	41.9	48.6	51.1	57.5	51.3	24.6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59.4	63.9	70.7	76.1	76.8	71.0	
		실업자 비율	4.2	3.0	2.7	1.1	1.6	2.2	
		비경활 비율	36.4	33.0	26.6	22.8	21.6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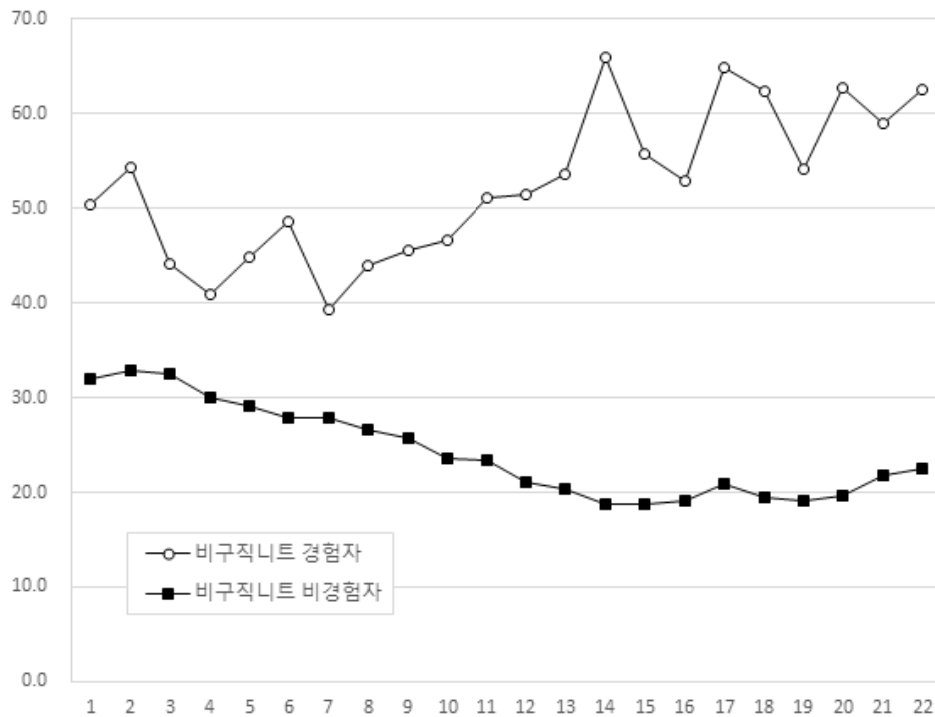
단, 표에서 ‘취업자 비율’, ‘실업자 비율’, ‘비경활 비율’은 각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표에서 ‘차이’는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각 경제 활동 상태 비율의 차이임.

<표 15>는 1998년에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의 이후 경제활동상태를 22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해당 인구에서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매우 열등한 성과를 보인다. 이 두 비율을 그림으로 그려 제시한 [그림 9]와 [그림 10]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세 연령집단 모두에서(표 15)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취업자 비율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더 낮고 비경활 비율은 더 높다. 이에 따라 분석기간 전체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취업자 비율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15~34세에서 17.2% 포인트 더 낮고 25~34세와 25~29세에서도 각각 30.6% 포인트와 24.6% 포인트 더 낮다. 비경활 비율의 차이는 각 연령집단에서 15.8%, 28.3%, 24.6% 이다.

[그림 9] 1차 조사(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취업자 비율 : 25-34세
(단위 : %)



[그림 10] 1차 조사(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경활 비율 : 25-34세
(단위 : %)



<표 16> 1~2차 조사(1998~1999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경제활동상태 추적관찰 결과

(단위 : %,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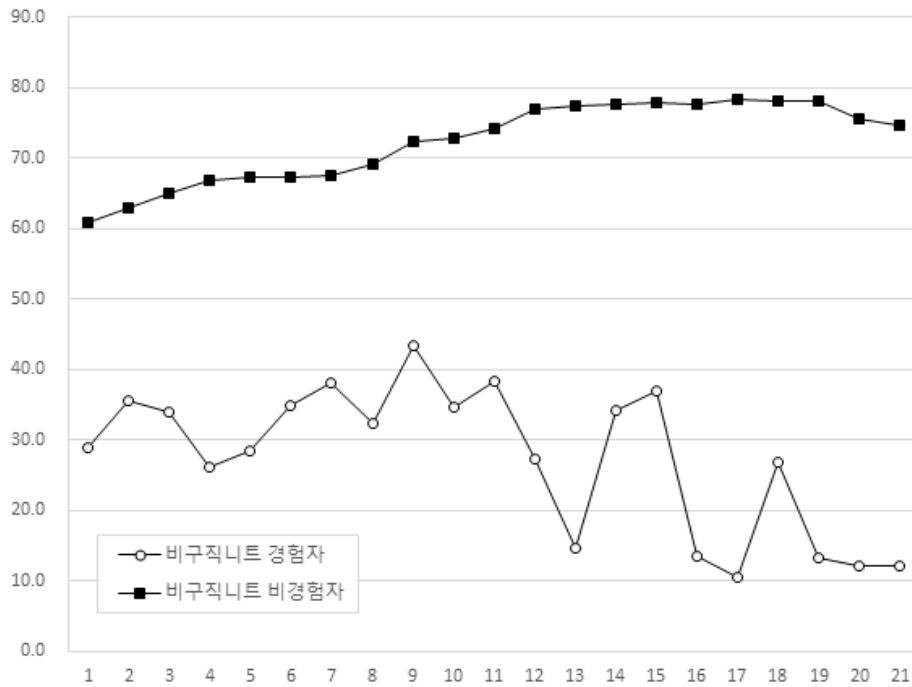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경제활동상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1년 후	평균	차이*
1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26.4	32.4	35.0	38.9	21.5	29.9	-35.9
		실업자 비율	9.9	3.6	0.7	0.0	0.0	2.8	0.2
		비경활 비율	63.7	64.0	64.4	61.1	78.5	67.2	35.7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39.9	56.1	68.6	75.5	75.9	65.9	
		실업자 비율	2.8	4.2	3.6	2.0	1.2	2.6	
		비경활 비율	57.3	39.8	27.9	22.6	22.9	31.6	
25~34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28.9	28.4	34.7	36.9	12.2	27.5	-44.9
		실업자 비율	6.5	3.6	0.0	0.0	0.0	-	-
		비경활 비율	64.6	68.0	65.3	63.1	87.8	70.1	44.5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60.8	67.4	72.9	77.8	74.7	72.4	
		실업자 비율	3.5	3.2	2.4	0.8	1.2	2.0	
		비경활 비율	35.7	29.5	24.7	21.3	24.1	25.7	
25~29세	경험자	취업자 비율	27.3	18.2	41.4	27.3	38.0	36.6	-32.9
		실업자 비율	5.8	7.1	0.0	0.0	0.0	-	-
		비경활 비율	66.9	74.6	58.6	72.7	62.0	62.1	33.8
	비경험자	취업자 비율	58.4	64.5	68.4	73.9	73.2	69.5	
		실업자 비율	3.8	4.2	3.1	0.9	0.9	2.2	
		비경활 비율	37.8	31.2	28.5	25.2	25.9	28.3	

단, 표에서 '취업자 비율', '실업자 비율', '비경활 비율'은 각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 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표에서 '차이'는 비구직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각 경제활동상태 비율의 차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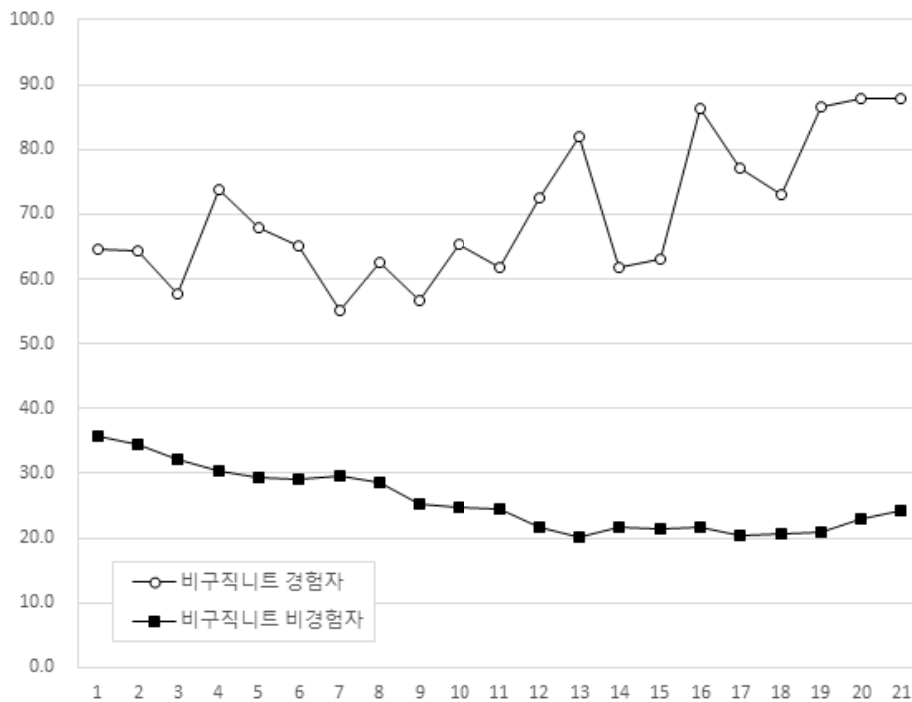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1998년과 1999년 두 해 연속으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의 노동시장 성과를 그렇지 않은 경우, 즉 비경험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자. <표 16>은 이 두 집단의 각 경제활동상태 비율을 21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고 [그림 11]과 [그림 12]는 25~34세의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표와 그림들에서 보듯이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에서 비구직 니트 2년 연속 경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모든 시점에서 그 성과가 훨씬 열악하다. 세 연령집단에서 취업자 비율 차이는 분석기간 21년 전체 평균에서 무려 35.9% 포인트(15~34세), 44.9% 포인트(25~34세), 32.9% 포인트(25~29세)에 이른다. 비경활 비율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성과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외환위기 당시 두 해 연속으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동시장 성과가 매우 열악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두 해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는 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이로부터 우리는 코로나19 하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11] 1~2차 조사(1998~1999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취업자 비율 : 25~34세
(단위 : %)



[그림 12] 1~2차 조사(1998~1999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경활 비율 : 25~34세
(단위 : %)



이제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월평균 임금 격차에 대해 알아보자. <표 17>은 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1998~99년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월평균 임금을 비경험자의 경우와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월평균 임금이 비경험자의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월평균 임금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분석 기간 전체 평균으로 볼 때, 15~34세의 경우 8.4% 더 낮으며, 25~34세의 경우 17.4% 더 낮다.

반면 1998년과 1999년 2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월평균 임금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비해 분석 기간 전체 평균으로 15~34세의 경우 22.4% 더 낮으며, 25~34세의 경우 38.0%나 더 낮다. 이는 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임금 격차에 비해 훨씬 더 큰 차이이다. 경제에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한 차례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는 경우에 비해 두 차례 연속으로 비구직 니트를 경험할 경우 이후 20여년 동안의 임금 손실은 매우 커지게 된다. 이는 경제활동상태에서의 노동시장 성과를 살펴보았던 앞의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결과로서 월평균 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표 17>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이후 월평균임금의 상대임금

(단위 : %, % 포인트)

기준시점	연령 계층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2년 또는 21년 후*	평균	차이
1차 (1998년)	15~34세	경험	77.2	82.1	88.8	99.2	115.1	91.6	-8.4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75.8	79.5	74.0	88.8	92.1	82.6	-17.4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80.5	88.4	76.7	85.1	95.9	87.4	-12.6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차 (1998~ 99년)	15~34세	경험	64.1	81.9	75.3	61.6	74.8	77.6	-22.4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58.3	88.3	67.2	29.1	28.7	62.0	-38.0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74.3	99.8	56.2	29.3	94.9	63.2	-36.8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 기준이 1차 조사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22년이며, 1~2차 조사 기준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21년임.

<표 18>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이후 시간당 임금의 상대임금

(단위 : %, % 포인트)

기준시점	연령 계층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2년 또는 21년 후*	평균	차이
1차 (1998년)	15~34세	경험	76.2	77.2	87.8	98.9	104.2	88.4	-11.6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76.2	80.2	72.6	93.2	90.1	80.2	-19.8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79.3	78.8	71.5	86.1	92.1	81.9	-18.1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차 (1998~ 99년)	15~34세	경험	67.7	85.6	80.5	49.2	81.3	78.4	-21.6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34세	경험	66.5	89.8	71.2	34.7	55.5	71.9	-28.1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29세	경험	68.4	84.1	57.8	35.2	97.8	63.9	-36.1
		비경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 기준이 1차 조사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22년이며, 1~2차 조사 기준인 경우 최종 추적 기간은 21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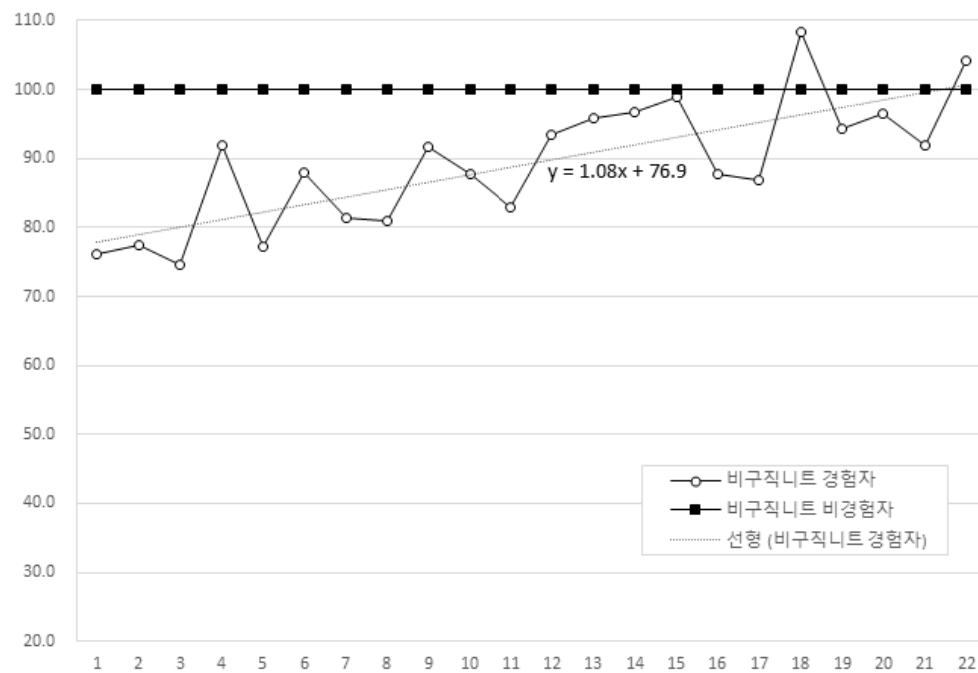
이제 월평균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조정한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자. <표 18>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시간당 임금으로 하더라도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임금은 비경험자의 경우에 대부분 미치지 못하며, 분석 기간 전체 평균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월평균 임금의 경우에 비해 2년 연속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는 25~34세의 경우 비구직 니트 경험 여부에 따른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경우들에서 양자의 격차는 다소 확대되었다.¹⁴⁾

한 가지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는,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볼 수 있듯이, 15~34세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자가 비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을 25~34세의 경우보다 더 잘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15~24세의 경우 비구직 니트 경험보다 25~34세에서 비구직 니트 경험이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한 노동시장 성과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이 그림들에서 점선으로 표시한 선은 비구직 니트 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을 추세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로서 기울기가 둘 다 양(+)의 값을 가지나, 15~34세에서 기울기가 더 크다. 즉 추격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5~34세의 경우, 마지막 추적 시점인 22년 후에 비경험자의 임금 추세를 따라잡고 있으나, 25~34세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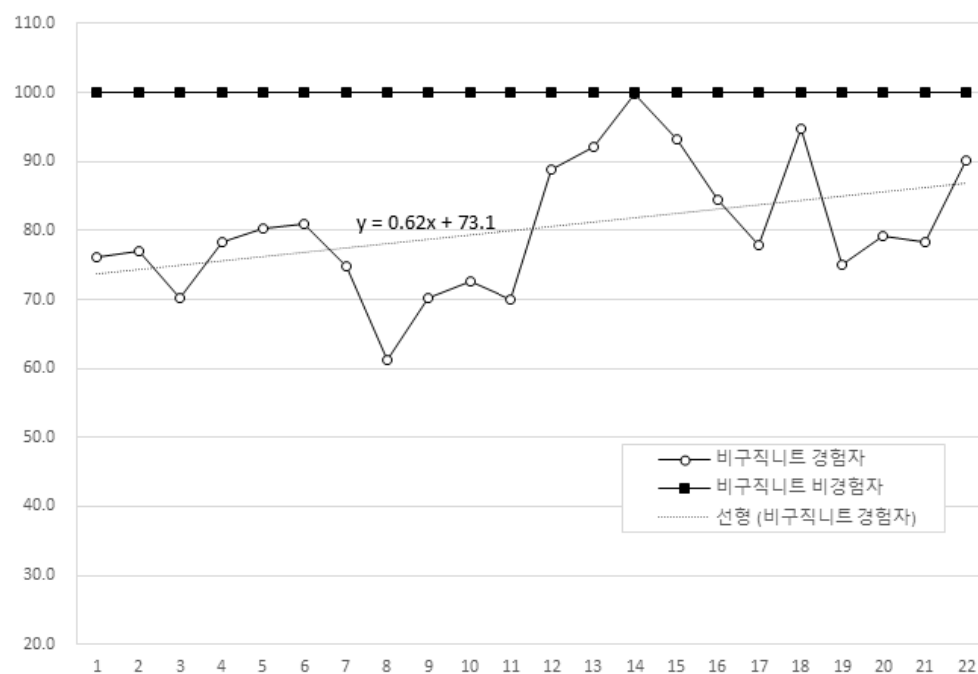
아울러 [그림 13]과 [그림 14]에서 보듯이 한 차례 비구직 니트를 경험할 경우, 경험자는 비경험자의 시간당 임금을 추격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달리 비구직 니트를 두 차례 연달아 경험하는 경우 임금 격차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 15]와 [그림 16]에서 보듯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즉 한 차례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는 데에 비해 두 차례 연속으로 경험할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측정한 노동시장 성과 격차는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14) 25~29세의 경우 표본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삼가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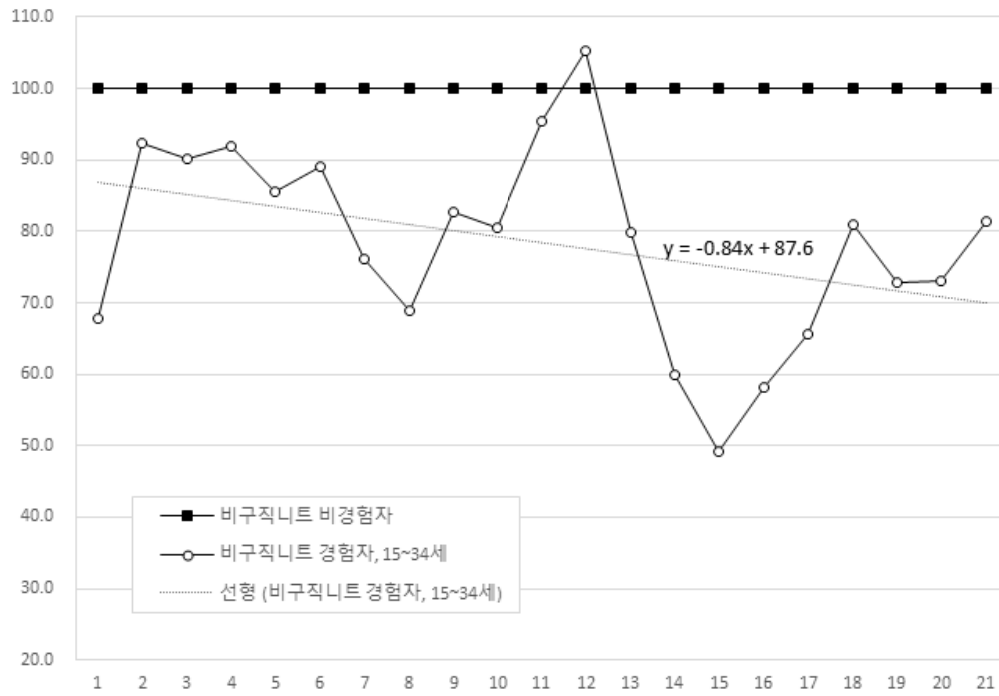
[그림 13] 외환위기 당시(1998년)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시간당 임금의 상대임금 : 15-34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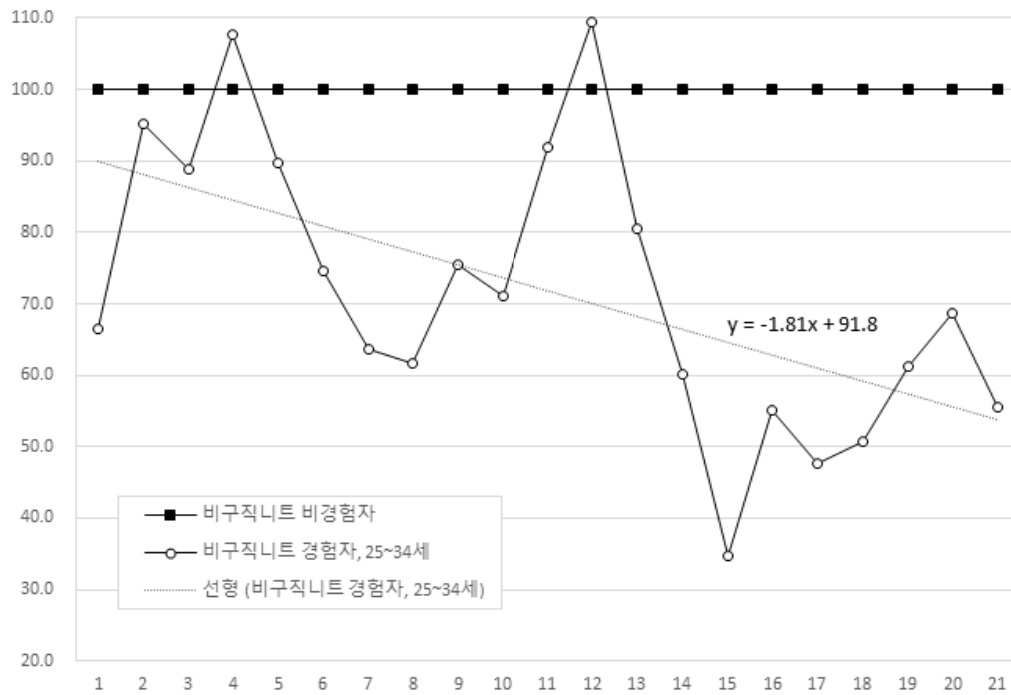
[그림 14] 외환위기 당시(1998년) 비구직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시간당임금의 상대임금 : 25-34세
(단위 : %)



[그림 15] 외환위기에서 2년(1998~99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시간당 임금의 상대임금 : 15~34세
(단위 : %)



[그림 16] 외환위기에서 2년(1998~99년) 연속 비구직 니트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이후 시간당임금의 상대임금 : 25~34세
(단위 : %)



V. 요약 및 결론

청년 니트(NEET)는 한국의 청년 노동시장 문제를 잘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다른 여느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혹은 청년층 역시 COVID-19(코로나19) 충격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청년 니트 역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니트의 규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청년 니트의 특성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 평소라면 청년기의 니트 경험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작용하고 사라질 수도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이 큰 충격하에서 니트 경험은 항구적인 상처로 남게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니트의 규모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들의 특성까지 바꾼다면 우리 경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방향을 크게 수정하여야 할 수도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 니트의 수는 2020년 172.3만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하여야 할 비구직 니트 역시 사상 최대치인 128.2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없었던 전년도에 비해 16.6만 명 증가한 것으로, 해당 청년 인구가 14.2만 명 감소한 가운데 발생한 이례적인 변화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의 이러한 결과와 달리 KLIPS 상에서 비구직 니트는 2020년 178.1만 명이나 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2.4만 명 증가한 것이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발생한 이러한 변화로 KLIPS 상의 비구직 니트 비율은 무려 19.5%를 기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20년을 추적하여 관찰한 결과,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이더라도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약화되며 취업을 하더라도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노동시장 성과는 그렇지 않은 평소의 경우와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코로나19 충격이 청년 니트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이와 비견될 정도의 충격에 해당하는 1998년 외환 충격의 청년 니트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98년에 비구직 니트를 경험한 청년은 이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에 비해 취업 가능성과 고용의 질 그리고 임금에 있어 열악하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도 연속하여 비구직 니트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들은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 열악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열악한 성과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비구직 니트를 일시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남재량(2019), 「청년 니트(NEET)와 중년 니트(NEET) 연구」, 2019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2019.12
- _____(2013), 「청년 니트(NEET)의 노동시장 성과」,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남재량·김세움) 제3장,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06),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결정요인 및 탈출요인 연구」,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노동연구원, 2006.2.

